

## 맞벌이 가정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직무만족도 및 배우자의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정은영<sup>1)</sup> 강민주<sup>2)</sup>

### 요약

본 연구는 사회인구학적인 변인과 어머니의 양육지식, 직무만족도, 배우자의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대상은 서울·경기지역의 직장어린이집에 다니는 24개월~36개월 사이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어머니 220명이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검증, 일원변량분석, 다중회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 방법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어머니의 연령, 교육수준, 가정 월수입, 자녀 수 및 양육지원 유무와 같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어머니가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상대적인 영향력을 보았을 때 배우자 지지가 가장 주요한 예측변인이었으며 직무만족도가 다음으로 주요한 예측변인이었다. 반면, 양육지식은 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양육스트레스에 대해 직무만족도와 배우자 지지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무만족도가 높은 집단의 경우, 배우자의 지지가 양육스트레스를 급격하게 감소시키는데 크게 기여하는 반면, 직무만족도가 낮은 집단의 경우, 배우자의 지지의 높고 낮음은 양육스트레스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맞벌이 가정, 양육스트레스, 양육지식, 직무만족도, 배우자지지

## I. 서론

한국 사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결혼과 자녀 출산 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이는

\* 본 연구는 2014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1) 화성삼성어린이집 교사

2)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부교수

과거에 비해 높아진 여성의 교육수준과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 자녀 사교육비 마련과 노후대책 등의 경제적인 이유가 맞물린 결과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연령대 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결혼·출산·자녀양육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점인 30대 여성의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쌍봉형(M자형) 커브를 나타낸다(통계청, 2011). 출산과 자녀양육시기에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기회가 크게 제한되고 있는 현상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감이 남성에게 비해 높다는 주장(송유미·이제상, 2011)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맞벌이 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시기에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는 어머니와 일이라는 두 가지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러한 양육환경의 변화는 자녀를 통한 정서적 만족과 같은 긍정적 측면보다는 개인시간의 부족, 지출 확대, 육체적 피로 등의 어려움으로 인식하게 되었다(권미경, 2011). 2~3세 걸음마기는 자아개념과 자율성, 일상생활에서의 자조능력이 발달함에 따라 부모는 새로운 역할이 요구되어 자녀 양육에서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으나(Gross, Conrad, Fogg & Wothke, 1994), 그만큼 부모로 하여금 자녀양육의 기초를 다지게 하는 중요한 시기라 볼 수 있다(도현심 외, 2009).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연구에 상대적으로 편중된 시점(권미경, 2011)에서, 2~3세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다른 연령보다 만 2세에서 만 3세 사이의 자녀를 양육하는 맞벌이 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살펴보고, 개인차를 야기시키는 예측변인을 살펴봄으로써 예방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양육스트레스는 일시적 혹은 순간적으로 느끼는 근심이나 부담감과 달리 일상적이고 지속성을 갖는 특성을 갖는다(안지영·박성연, 2002; Crnic & Greenberg, 1990).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일상적인 스트레스, 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한 스트레스, 타인양육으로 인한 죄책감은 맞벌이 가정 어머니에게 지속적인 긴장과 부담을 안겨 심각한 수준의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발달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는 영아기 자녀를 둔 양육자의 역할은 그만큼 강조되고, 양육부담도 증가하는 시기이므로(정미라·강수경·김민정·최혜정, 2014), 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가 어느 시기보다 높을 것이라 예상된다.

명확한 사실은 양육스트레스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부모의 정서와 신체건강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민현숙·문영경, 2013), 자녀의 발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양육방식과 양육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정미라 외, 2014)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양육스트레스를 자녀 양육의 당연한 과정이라 여기는 소극적인 태도보다는, 미리 예방하고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할 것이다.

양육스트레스는 가정의 월 소득, 교육수준 등 사회인구학적인 배경과 그 밖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김근혜·김혜순, 2013), 이는 양육스트레스가 다양한 변수를 통해 동시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변인들 간의 상호작용과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아야 이해를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으로는 연령, 가정 월 소득, 교육수준, 자녀 수 등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양육스트레스에 대해 반드시 유의한 영향을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니며, 변인에 따라 또는 연구대상에 따라 다른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어머니의 연령과 양육스트레스(권정윤·정미라·박수경, 2012; 이경하·서소정, 2009), 가정의 월수입과 양육스트레스(권정윤·정미라·박수경, 2012; 김리진·윤종희, 2000),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양육스트레스(권정윤·정미라·박수경, 2012; 김영주·송연숙, 2007; 박미석·김지은, 2013; 이경하·서소정, 2009; 임순화·박선희, 2010), 자녀 수와 양육스트레스(오재연·유구종, 2007), 출생순위와 양육스트레스(김영주·송연숙, 2007)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반면, 자녀양육의 과정에서 친척이나 주위의 도움과 같은 사회적 지지가 많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낮다고 보고된 경우도 있고(김명원·강민주, 2011), 양육지원 유무보다는 손자녀 양육을 지원해 주는 조모와의 관계의 질이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밝힌 선행연구도 있다(김은정, 2014).

사회인구학적 변인 외에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으로 개인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부모는 자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이의 행동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난감한 상황에서 양육스트레스가 높아지는데, 이는 곧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한다는 자책감을 유발하게 된다(이경하·서소정, 2009). 특히 영아기는 부모와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양육자가 영아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영아의 욕구와 행동을 이해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김영주·송연숙, 2007). 그런데 이와 같이 어머니가 영아의 발달이나 양육과 관련된 지식이 부족하다면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상황에 대해 당황하게 되고 적절한 대처가 어렵게 느껴지기 쉬우며(이주연·이석호, 2010),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양육에 대해 스트레스를 느끼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맞벌이 가정 어머니는 직장생활로 인해 대리양육을 일정시간동안 하고 있으므로 직접적인 양육

경험을 통한 양육지식 습득의 기회가 적다. 맞벌이 가정 어머니가 영아기 자녀의 특성이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올바른 양육지식은 절실하다. 만약 부모가 적절한 양육지식을 갖고 있는 경우라면, 오히려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시킴으로써 양육스트레스가 완화 될 수 있다(송연숙·김영주, 2008). 즉, 양육지식 수준이 높은 경우, 어머니는 연령에 적합한 발달수준을 인식할 수 있어 자녀의 발달상 과잉기대를 줄일 수 있으며(김정미·문승미·김유경·안선희, 2013),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 중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에서 양육지식을 바탕으로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어머니의 양육지식이 맞벌이 가정의 특성과는 밀접한 관련이 없을지라도, 앞서 살펴보았듯이 어머니가 자녀의 발달이나 양육방법에 대한 적절한 지식은 궁극적으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머니 개인이 알고 있는 양육에 대한 지식은 취업여부와는 독립적으로 양육을 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양육지식과는 달리 어머니가 취업모일 경우, 직무와 관련된 정신적 물리적 환경에 따라 양육에 대해 느끼는 스트레스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맞벌이를 하는 어머니의 경우,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감과 함께 직장업무에 대한 책임을 병행해야 한다는 특성이 있으며, 이 때 본인의 직무에 대한 만족도나 스트레스 정도는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하고 있는 직무에 대해 보람과 성취감, 불만족과 긴장감 등 다양한 심리적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요인들은 양육스트레스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얻을 수 있는 기회와 자원은 오히려 다른 영역의 역할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다(이윤석, 2010). 일과 가정에서의 역할로 서로 긍정적인 전이가 일어날 수 있으며, 두 영역 모두에서의 성공적인 결과와 만족도의 향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Grzywacz & Marks, 2000). 아버지의 직업만족도가 높을수록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는 낮아진다는 김기현(1998)의 연구결과에서도 보듯이, 맞벌이 가정 어머니의 경우에도 양육스트레스와 관계가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어머니 개인의 노력이나 경험을 통해 이미 갖고 있는 양육지식과 어머니 본인의 취업상황에 따른 직무 만족도와 달리,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환경적 요인으로 주변인들의 도움과 지지를 들 수 있다.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친구나 친척, 배우자에게 받는 다양한 사회적 지지의 경험은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를 지각하는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배우자는 맞벌이 가정 어머니가 어려움을 느낄 때 도움을 기대하고 요청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지원자라 할 수 있다. 배우

자의 지지는 실제 양육에 참여함으로써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어머니에 대한 정서적 지원의 측면으로도 볼 수 있다. 문혁준(2004)은 배우자의 지원이 어머니 역할을 병행하는데 오는 갈등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양육스트레스를 적게 느끼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즉, 배우자로부터의 지지는 배우자의 행동에 대한 해석을 통해 지각하게 되며 이를 통해 자신의 정서 및 행동 반응에 영향을 준다(정문경·김병석, 2014). 부부 간 이루어지는 다양한 상호작용과 관계로 미루어 보았을 때 배우자를 어떻게 지각하느냐가 결국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달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적인 양육에 대한 지지보다는 심리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다. 김명원과 강민주(2011)의 연구에 따르면,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인식하는 사회적 지원에 있어 주위의 도움보다는 배우자의 협력이 상대적으로 양육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 밖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다도, 배우자 지지가 높을수록 맞벌이 가정 어머니는 일과 양육을 병행하면서 육체적·심리적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양육스트레스는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김정·이지현, 2005; 문혁준, 2004). 결국 양육스트레스를 지각하는 정도는 배우자의 지지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특히 배우자의 사회적 지원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은 이러한 직접적인 측면 이외에도, 결혼생활에서의 스트레스를 완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Brock & Lawrence, 2008)고 보고되고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배우자의 지지는 취업모로 하여금 일과 가족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낮출 뿐 아니라, 일과 가족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보고되고 있다(노성숙·한영주·유성경, 2012; 유성경·한영주·조윤진, 2011). 즉, 배우자의 지지는 일에서 가족으로 가는 다중역할의 경험에서 일과 가족 간 갈등을 완충하여 일과 가족 간 관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한영주·박지아·손난희, 2013).

맞벌이 가정 어머니의 경우, 자녀양육에 대한 역할과 직장에서 다중 역할을 함으로써 그 부담이 증가하는데, 만약 자신의 직무에 대한 만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 또는 행동측면의 특성들이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때 이에 대한 배우자의 지지 여부는 양육스트레스에 중요한 결정요인이 될 것이다. 실제로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직업만족도와 배우자 지지의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본 김기원 외(2010)의 연구를 보면, 직업만족도와 배우자 지지의 상호작용효과를 통해 양육스트레스가 감소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직무만족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모든 근로자나 경제활동인구들의 일에 대한 심리적 상태를 일컫는데(이영면, 2004),

박영신과 이경란(2014)의 연구에 따르면, 개인이 지각하는 직무에 대한 만족도 형성 과정에서 주변의 정서적 지원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 즉, 일과 자녀양육을 함께 짊어지고 있는 맞벌이 가정 어머니에게 있어서 자신의 직무에 대한 만족감은 배우자의 지지를 통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완충시키거나 또는 반대로 더욱 악화시키는 등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 할 때, 배우자 지지와 양육스트레스와의 단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직무 만족도와 배우자 지지의 상호작용효과를 밝히는 것은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효과적인 중재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외에도 본 연구에서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예측변인으로 살펴보는 양육지식 또한 배우자지지 또는 직무만족도와 상호작용을 살펴볼 수도 있겠으나, 서영석(2010)의 주장처럼 선행연구에 따른 이론적 근거 없이 삼원 상호작용효과를 설정하고 검증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우연에 의지해서 통계검증을 실시하는 것에 불과할 것이다.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양육지식과 배우자 지지 또는 직무만족도와 상호작용효과 같은 경우, 분명한 조절변인에 대한 근거나 선행연구를 통한 이론적 토대가 미비한 실정이다. 결국, 본 연구에서는 영아기의 빠른 발달 속도로 양육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예상되는 어머니의 지적 특성인 양육지식과 경제활동 참여로 인한 심리적 측면인 직무만족도, 어머니의 양육파트너로서의 아버지에 대해 어머니가 인식한 배우자 지지라는 폭넓은 접근을 시도하였다. 아울러, 지적·심리·사회적 측면을 중심으로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각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과 함께,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직무만족도와 배우자 지지의 상호작용효과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검증 과정은 양육스트레스 감소를 위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원인과 중재방안을 고민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맞벌이 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예방하는 효과적인 대처 방안 마련에 기초자료로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가지고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사회인구학적 배경(연령, 교육수준, 가정의 월수입, 자녀 수, 출생순위, 양육지원 유무)에 따라 양육스트레스는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양육지식, 직무만족도, 배우자의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하여 직무만족도와 배우자 지지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와 경기도 11곳의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만 1·2세반 중에서 만 24개월부터 만 36개월 사이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어머니 2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맞벌이 가정 어머니는 모두 정규직이며, 직장어린이집은 어머니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 설치되어 종일제로 운영된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선행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만 24개월부터 만 36개월 사이의 만 2세 영아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어머니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인 맞벌이 가정 어머니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으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대상인 맞벌이 가정 어머니의 연령은 평균 33.26세(SD=3.29)로 나타났으며, 평균 29.80개월(SD=3.70)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다. 가정의 월수입은 평균 687.55만원(SD=186.79)이며 교육수준은 대졸이 89명(40.50%)으로 가장 많았다. 자녀수는 1명이라는 응답이 122명(55.50%), 2명 이상이 98명(44.5%)였으며, 만 2세 자녀의 출생순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외동아를 포함한 첫째가 151명(68.60%)으로 가장 높은 빈도였다. 직장어린이집 이용 이외에 양육을 도와주는 지원 유무를 살펴보면 없다는 응답이 127명(57.7%)으로 있다는 응답 93명(42.30%)보다 높았다. 배우자의 근무 형태는 임시직이나 일용직은 없었고, 모두 상용직 214명(97.30%)과 자영업 6명(2.70%)의 안정적인 근무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표 1〉 연구대상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개인적 특성(N=220)

변인	실제 범위	평균(표준편차)	구분	빈도(%)
자녀의 연령	24~36개월	29.81( 3.70)		
어머니 연령	25~43세	33.26( 3.29)		
가정 월수입	400~1600만원	687.55(186.79)		
교육수준			고졸 이하	57(25.90)
			전문대졸	29(13.20)
			대졸	89(40.50)
			대학원 이상	45(20.50)
자녀 수			1명	122(55.50)
			2명 이상	98(44.50)
출생순위			첫째(외동아포함)	151(68.60)
			둘째 이상	61(31.40)

(표 1 계속)

구분	실제 범위	평균(표준편차)	구분	빈도(%)
양육지원유무 <sup>a</sup>			유	93(42.30)
			무	127(57.70)

주: a 양육지원은 양육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 인력(조부모, 친척, 고용된 육아도우미)

## 2.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위의 사회인구학적 배경과 관련된 7가지 문항들 외에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지식, 직무만족도, 배우자의 지지를 측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각각의 변인은 어머니의 자기보고식 척도에 의해 평가되었다.

### 가.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Abidin(1990)의 Parenting Stress Index(PSI)의 Parental Distress 요인과 Crnic과 Greenberg(1990)의 Parenting Daily Hassles(PDH), Mann과 Thornberg(1987)의 Maternal Guilt Scale(MGS)등의 선행연구를 기초로 실제 영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를 대상으로 개발한 김기현과 강희경(1997)의 ‘양육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양육스트레스는 일상적 스트레스, 부모역할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의 세 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2문항이다. 각 문항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0점)’부터 ‘항상 그렇다(4점)’까지의 Likert식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0점부터 128점 사이에 점수가 분포한다. 본 연구에서 양육스트레스는 총점을 사용하여 분석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김기현과 강희경(1997)의 연구에서 전체문항에 대한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alpha$ 는 .88이었고, 본 연구에서 양육스트레스 총점에 대한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alpha$ 는 .94이다.

### 나. 양육지식

본 연구에서는 양육지식을 측정하기 위해 Larsen과 Juhasz(1986)가 개발한 KCDI(Knowledge of Child Development Inventory)를 아동학 전공 교수를 포함한 본 연구자(들)이 직접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정서발달, 인지발달, 신체발달, 사회성발달의 하위요인을 포함하며, 각각 14문항씩 총 5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자가 각 문항에 대해 네 개의 보기 항목 중 하나의 답을 고르도록 되어있으며, 옳은 답으로 응답한 경우에는 1점, 옳지 않은 답으로 응답한 경우에는 0점을 부과하여 점수화하였다. 양육지식의 분석은 총점을 사용하며, 이때 가능한 점수범위는 0점에서 56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영아 발달에 대해 보다 바람직한 양육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Larsen과 Juhasz(1986)의 척도에서는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alpha$ 는 .93으로 나타났으며, 기준 타당도는 .83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양육지식 총점에 대한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alpha$ 는 .67이었다.

#### 다. 직무만족도

어머니의 직무만족도 측정을 위해서 Weiss, Dawis, England 와 Lofquist(1967)가 개발한 미네소타만족설문지(Minnesota Satisfaction Questionnaire: MSQ)를 박아이린(2005)이 번역하고 수정한 질문지가 사용되었다. 직무만족도는 내재적(intrinsic), 외재적(extrinsic), 전반적(general)요인으로 나뉘며, 총 20문항이다. '매우 불만족 한다(1점)'부터 '매우 만족 한다(5점)'의 Likert식 5점 척도이다. 직무만족도는 총점을 사용해 분석되며, 점수범위는 20점에서 100점 사이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박아이린(2005)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alpha$ 는 .87이었고, 본 연구에서 산출된 직무만족도 총점에 대한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alpha$ 는 .92이었다.

#### 라. 배우자 지지

배우자 지지는 장춘미(2001)의 '부부의 지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장춘미(2001)는 박지원(1985)의 사회적 지지 척도 중에서 '간접적으로 지각한 지지 척도' 18문항과 Pasch와 Bradbury(1998)의 '사회적 지지 상호작용 분류체계의 분류에 대한 기술' 중 부정적 지지 행동 4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그 중 자신에 대한 배우자의 행동을 지각하여 보고하는 형태만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의 하위영역은 정보적(informational)지지, 정서적(emotional)지지, 존중감(esteeem)지지, 부정적(negative)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2문항이다. 응답자는 문항에 대해 '전혀 없다(0점)'에서 '항상 있다(5점)'까지의 Likert식 5점 척도이다. 총점의 점수 범위는 0점부터 110점이며, 배우자 지지는 총점을 사용해 분석한다. 이때 총점이 높을수록 배우자의 긍정적 지지 제공의 빈도를 높게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춘미(2001)의 연구에서 전체문항에 대한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alpha$ 는 .94였고, 본 연구에서 산출된 배우자 지지 총점의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alpha$ 는 .96이었다.

### 3. 연구 절차 및 자료 분석

본 연구를 위한 조사는 2014년 9월에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261부를 배부하여 242부가 수거됨으로써 92.72%의 회수율을 보였다. 그 중 연구 대상의 해당 월령에 포함되지 않거나, 문항들 중 응답이 빠진 문항이 있는 22부를 제외한, 총 220부의 자료만을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인구학적 배경에 따라 연구변인들 간 차이가 있는지 t-test 와 ANOVA를 통해 살펴보았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지식, 직무만족도, 배우자의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직무만족도와 배우자 지지의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하였다.

## Ⅲ. 연구결과

### 1. 측정변인들의 일반적 경향

본 연구에서 측정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지식, 직무만족도, 배우자의 지지의 점수와 표준편차를 살펴본 결과는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양육스트레스 총점의 응답 가능한 점수범위는 0점에서 128점 사이이며, 평균점수는 49.11점(SD=17.07)이다. 양육지식은 가능한 점수 범위 0점에서 56점으로 평균점수는 42.77점(SD=4.48), 직무만족도는 20점에서 100점사이의 가능한 점수범위로 평균 73.50점(SD=9.49), 배우자 지지는 0점에서 110점의 가능한 점수범위에서 평균점수 80.92점(SD=17.93)으로 측정되었다.

〈표 2〉 측정변인들의 점수 범위 및 평균, 표준편차(N=220)

구분	가능 점수 범위	실제 점수 범위	평균(표준편차)
양육스트레스	0~128	6~103	49.11(17.07)
양육지식	0~56	26~51	42.77(4.48)
직무만족도	20~100	47~100	73.50(9.49)
배우자 지지	0~110	11~110	80.92(17.93)

##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사회인구학적 배경(연령, 가정의 월수입, 교육수준, 자녀 수, 출생순위, 양육지원 유무)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과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의 차이에 대한 일원변량분석, t 검증 결과(N=220)

구 분	빈도	양육스트레스평균	F/t	
어머니 연령	25~29세	26	49.08	
	30~34세	121	48.91	F = .65
	35~40세	62	49.19	
	40~45세	11	50.91	
가정의 월수입	400~499만원	16	45.63	
	500~599만원	38	49.21	F = 1.13
	600~699만원	57	49.74	
	700~799만원	41	45.66	
	800~899만원	41	53.83	
	900~999만원	11	53.45	
	1000만원 이상	16	43.88	
교육수준	고졸 이하	57	46.96	
	전문대졸	29	44.28	
	대졸	89	49.93	
	대학원 이상	45	53.31	
자녀 수	1명	122	47.97	t = -1.11
	2명	98	50.53	
출생순위	첫째(외동아포함)	151	48.81	t = -.39
	둘째 이상	69	49.77	
양육 지원 <sup>a</sup> 유무	유	93	49.03	t = -.06
	무	127	49.17	

주: <sup>a</sup>양육지원은 양육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 인력(조부모, 친척, 고용된 육아도우미)

\*\*  $p < .01$ , \*  $p < .001$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인구학적 배경(연령, 가정의 월수입, 교육수준, 자녀 수, 출생순위, 양육지원 유무)에 따라 양육스트레스의 정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보고 되지 않았다.

### 3.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직무만족도 및 배우자의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직무만족도, 배우자의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하기 전, 독립변수들 사이의 다중공선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공차(tolerance)와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살펴보았다. 공차와 분산팽창계수가 모두 1에 근접할 때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며, 분산팽창계수의 경우 10이상이 되면 다중공선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성태제, 2007). 모든 계수의 공차는 .94~1.00으로 .10을 넘는 수치이며, 분산팽창계수는 1.00에서 1.07사이로 1에 가깝고 10이하이므로 회귀모형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다중회귀 결과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양육지식, 직무만족도, 배우자의 지지를 독립변인으로 한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 $F=21.27, p<.001$ ), 양육스트레스 총 변량의 23%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들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독립변인 중 직무만족도와 배우자 지지만이 양육스트레스를 예측하는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때 배우자 지지( $\beta=-.40, p<.001$ )가 직무만족도( $\beta=-.18, p<.01$ )에 비해 양육스트레스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요약하면, 직무만족도와 배우자 지지가 높을수록 어머니는 양육스트레스를 낮게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측했던 바와는 달리 양육지식은 양육스트레스를 예측하는 변인으로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이 중 배우자의 지지가 직무만족도에 비해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N=220$ )

구분	$B$	$\beta$	$R^2$	$F$
양육지식	-.15	-.02		
직무만족도	-.20	-.18**	.23	21.27***
배우자 지지	-.26	-.40***		

$B$ = 비표준화 계수,  $\beta$ = 표준화 회귀계수.

\*\*  $p < .01$ , \*\*\*  $p < .001$

### 4.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직무만족도와 배우자 지지의 상호작용효과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은 총 3단계에 걸쳐 이루어졌다.

직무만족도는 개인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주관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반면, 배우자 지지의 경우 본인이 아닌 사회적 지지 변인으로 상대적으로 환경적인 측면이 강하다. 이에 위계적 회귀 분석 시 투입 순서로 개인 내적인 직무만족도를 1단계에 넣고, 환경적 측면인 배우자 지지를 2단계로 투입하였다. 마지막으로 직무만족도와 배우자 지지 간 상호작용변인(직무만족도 × 배우자 지지)을 추가 투입하여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설명력을 살펴보았다. 직무만족도와 배우자 지지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호작용항은 직무만족도와 배우자 지지의 변인 값을 표준점수로 변환하여 곱하여 생성하였다. 모든 계수의 공차는 .93~1.00로 .10을 넘는 수치이며, 분산팽창계수는 1.00~1.08사이로 1에 가깝고 10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직무만족도와 배우자 지지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직무만족도와 배우자 지지의 상호작용효과 검증을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N = 220)

구분	1단계 $\beta$	2단계 $\beta$	3단계 $\beta$
직무만족도	-.28***	-.18**	-.16**
배우자 지지		-.40***	-.41***
직무만족도×배우자 지지			-.13*
$R^2$	.08	.23	.25
$R^2$ 변화량		.15	.02
$F$	18.09***	31.96***	23.40***
$F$ 변화량		42.41***	5.07*

주:  $\beta$  표준화 회귀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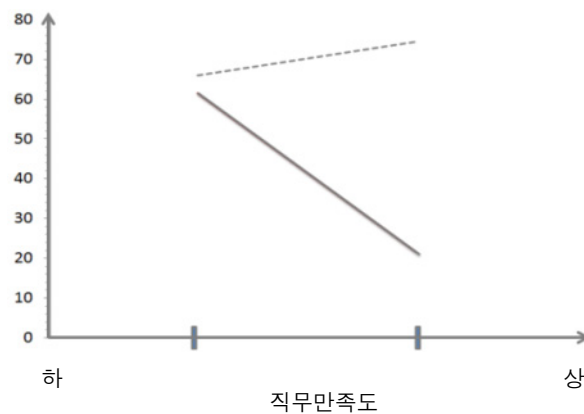
\*  $p < .05$ , \*\*  $p < .01$ , \*\*\*  $p < .001$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1단계에서는 직무만족도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이 회귀식은 유의하였고( $F=18.09$ ,  $p<.001$ ), 직무만족도는 8%의 설명력을 가지고 양육스트레스를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28$ ,  $p<.001$ ). 2단계에서 직무만족도와 배우자 지지가 동시에 예측변인으로 투입된 결과, 이 두 가지 변인이 포함된 회귀식은 유의하였다( $F=31.96$ ,  $p<.001$ ). 즉, 직무만족도( $\beta=-.18$ ,  $p<.01$ )와 배우자 지지가( $\beta=-.40$ ,  $p<.001$ )가 동시에 양육스트레스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직무만족도와 배우자 지지가 포함된 회귀식의 설명력은 15% 증가하여 양육스트레스에 대해 총 23%의 설명력을 가진다. 3단계에서는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직무

만족도와 배우자 지지의 상호작용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직무만족도와 배우자 지지 두 변인의 표준화 점수(Z점수)를 곱한 상호작용항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였다. 그 결과 회귀식의 설명력이 2%증가하여 양육스트레스에 대하여 총 25%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회귀식의 유의성도 검증되었다( $F=23.40, p<.001$ ).

본 연구에서는 양육스트레스를 예측하는 직무만족도와 배우자 지지가 모두 연속변인이므로, 회귀분석 결과만을 통해 상호작용 양상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 이에 Aiken과 West(1996)이 제안한 방법에 따라 평균값으로부터 +1 표준편차만큼 떨어진 값을 높은 수준(상)으로, -1 표준편차만큼 떨어진 값을 낮은 수준(하)으로 설정하여  $\pm 1$  표준편차만큼 떨어진 직무만족도와 배우자 지지 점수를 기준으로 상하 두 집단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직무만족도와 배우자 지지 상하집단을 상-상, 상-하, 하-상, 하-하로 구분하고, 집단별 양육스트레스 평균값을 토대로 상호작용효과를 시각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그래프를 그려 [그림 1]에 제시하였다.

[그림 1]의 그래프에 나타난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면, 직무만족도가 낮은 집단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지지를 높게 지각하든 낮게 지각하든 양육스트레스를 인식하는 정도에는 큰 차이가 없게 일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양육스트레스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직무만족도가 높은 집단의 경우, 배우자의 지지의 높고 낮음에 따라 양육스트레스를 인식하는 정도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무만족도가 높은 집단의 경우, 배우자 지지가 동시에 높을 경우가 배우자 지지가 낮은 경우보다 양육스트레스가 확연하게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직무만족도와 배우자 지지의 상호작용효과

####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연령, 가정의 월수입, 교육수준, 자녀 수, 출생순위, 양육지원 유무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차이를 살펴보고, 만 2세 영아를 둔 맞벌이 가정 어머니의 양육지식, 직무만족도, 배우자의 지지가 상대적으로 양육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직무만족도와 배우자 지지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해 보았다. 서론에서도 기술하였듯이 배우자의 지지가 양육스트레스를 완충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에 근거해 배우자 지지를 조절변인으로 하여 다른 예측변인과의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양육지식의 경우,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있지만, 배우자 지지 또는 직무만족도와 상호작용효과를 본 선행연구는 미비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다중회귀분석에서 양육지식은 양육스트레스에 대하여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지식의 경우, 문항간 내적합치도가 .67인 점이 문제가 되었을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문제인 세 가지에 대한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의하면 맞벌이 가정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은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음을 밝힌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즉, 어머니의 연령(권정운·정미라·박수경, 2012; 이경하·서소정, 2009), 가정의 월수입(권정운·정미라·박수경, 2012; 김리진·윤종희, 2000), 어머니의 교육수준(권정운·정미라·박수경, 2012; 김영주·송연숙, 2007; 박미석·김지은, 2013; 이경하·서소정, 2009; 임순화·박선희, 2010), 자녀 수(오재연·유구중, 2007), 출생순위(김영주·송연숙, 2007)는 양육스트레스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그동안의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반면, 조부모, 친척, 육아도우미로 정의했던 양육지원의 유무와 양육스트레스 간에 차이가 없다는 본 연구 결과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자녀양육의 과정에서 친척이나 주위의 도움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난 김명원과 강민주(2011)의 연구 결과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양육지원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 간에 양육스트레스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오지 않았다. 이는 양육지원 유무와 관련해서 양육지원이 있을 경우, 그 질을 살펴 본 김은정(2014)의 연구결과를 통해 결과를 해석해 볼 수 있다. 즉, 김은정(2014)에서의 연구에서 밝혔듯이 손자녀 양육을 지원해주는 조모와의 관계의 질이 단순한 양육지원 유무보다는 중요한 예측변인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양육지원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 간 양육스트레스에 차이가 없었던 것은 양

육지원이 있는 경우에도 조부모나 친척, 육아도우미들과의 갈등이 있을 경우, 지원이 전혀 없는 경우에 비해 양육스트레스가 크게 감소하지 않고 또 다른 스트레스를 느낄 가능성이 있기에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본다. 즉, 오히려 대체양육자와의 갈등으로 인해 양육스트레스가 높아질 수도 있으므로 양육지원이 있을 경우, 갈등의 정도를 함께 고려해 보아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았을 때, 배우자의 지지가 가장 강한 예측변인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직무만족도가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반면, 양육지식의 경우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에 대해 부적으로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배우자의 지지가 낮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는 선행연구 결과(윤지원·황라일·조현하, 2009)와 일치되는 결과이다. 따라서, 맞벌이 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배우자의 지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해석에 주의해야 할 점은, 배우자 지지라는 변인이 실제로 배우자의 지지를 절대적인 시간과 양으로 측정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지각하는 주관적인 관점에서 배우자의 지지를 평가한 점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배우자가 직접적으로 양육에 참여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배우자에 대한 심리적인 지지와 따뜻한 격려, 믿음을 전달할 경우, 양육스트레스가 크게 감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옥경희와 천희영(2012)의 연구를 보더라도,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예측하는 유의한 변인이 될 수는 있으나, 부부관계를 통해 양육스트레스에 행사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부부간 관계에 있어 신뢰와 표현 방법 등에 대한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부부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면 양육스트레스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 개선과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맞벌이 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부분 합의하며, 사회적으로도 아버지의 육아 휴직 장려,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양육참여를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배우자의 지지는 물리적 시간의 할애가 아니더라도 정서적인 지지를 통해 맞벌이 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음이 드러났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감소를 위해서는 배우자의 직접적인 양육참여라는 방법 외에도 배우자의 정서적 지지와 같은 측면을 통해서도 충분히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캠페인 등의 홍보를 통해 인식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인식개선과 더불어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노력도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배우자와의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과 무엇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부부관계증진 프로그램, 원만한 갈등해결에 관한 교육 및 상담 등이 보다 보편화 되고 지원되어야 하겠다. 그러나 맞벌이 가정의 부부가 시간을 내어 이러한 교육에 참여하기는 쉽지 않다. 긍정적인 부부관계가 건강한 자녀성장의 발판이 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긍정적인 부부간의 심리적 기제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배포함으로써 맞벌이 부부가 참여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역사회 전문 인력과 어린이집이 연계되어 장소 제공 및 다양한 교육 자료를 접할 수 있는 기회 확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가령, 어린이집의 부모교육 내용에서도 자녀 양육에 관한 내용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양육자인 부부의 관계 개선과 정서적 지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커리큘럼이 활성화 되는 것을 들 수 있겠다. 이를 위해서는 이러한 시스템을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행정체계의 뒷받침이 단계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배우자지지 다음으로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직무만족도였다. 즉, 직무만족도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양숙경과 문혁준(2010)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자녀가 있는 직장 여성의 경우, 일과 양육의 병행은 역할부담으로 이어져 양육스트레스를 더욱 크게 느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경우라면, 오히려 양육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본 연구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따라서, 여성의 일과 양육이라는 다중역할로 인해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할 것이라는 측면에서만 바라보며 역할부담에서 오는 측면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근무환경 속에서 그들의 직무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취업여부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는 아니다. 연구대상 모두가 맞벌이 가정의 어머니들이며 직장 일을 하면서 양육을 동시에 하는 조건을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다. 이런 공통된 조건하에서 본인의 직장생활 여건과 환경, 근무 조건 및 전반적인 직무에 대한 만족도는 양육스트레스의 정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의 동기를 살펴보면, 자아실현의 목적도 있겠지만,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 해결이 주된 이유가 되는 경우도 있다. 경제활동 참여의 계기는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고, 지속적인 자기계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따라서, 단순히 양육비만을 지원해 주거나 보육시설 확보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들이 자신의 직무 환경에 만족하고, 직무

에 임할 때는 직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고, 무리한 근무조건으로 가정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게 하지 않는 등 안정적인 사회적 근무환경시스템이 구축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양질의 여성인력을 확보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근무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을 쓰는 것이야말로 기업 측면에서 볼 때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각 가정의 양육스트레스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어머니의 직업에 대한 태도와 만족도가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변인으로, 직무만족도가 단순하게 일의 생산성과 능률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의 자녀양육에 대한 스트레스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양육지식과 양육스트레스의 관계를 살펴보면, 양육지식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는 덜 느낀다는 기존의 연구결과(김영주·송연숙, 2007; 민현숙·문영경, 2013)와는 다르게 나타났다. 양육지식이 정규분포를 따르는지 확인하기 위해 왜도는 절대값 2이상, 첨도는 절대값 7이상이 아닌 경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West, Finch와 Curran(1995)의 기준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양육지식에 대한 왜도는 -.66으로 절대값 2이하이고, 첨도는 .35로 절대값 7이하이므로 통계자료로서 정규성에는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양육지식이 많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감소될 것이라는 가정과는 달리 양육지식이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양육지식의 내적합치도가 .67로 낮은 수치를 보인다는 것에서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내적합치도가 낮은 것은 자연스럽게 양호한 타당도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문항제거를 고려하였으나, 문항 제거 후에도 기대할 수 있는 내적합치도는 .68로 기존 .67과 차이가 거의 없었다. 신뢰도가 낮을 수 밖에 없었던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정답과 오답이 있는 56개의 문항을 해결하는데 있어 특별한 검사 장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질문지를 읽고 문항에 대한 답을 적는 과정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질문지를 읽고 응답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외부의 방해요소나 사건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양육지식 척도가 미국에서 개발되어 사회·문화적으로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하지 않았을 수 있고, 양육지식으로 선별된 문항의 정·오답만으로 양육지식을 일괄적으로 점수화한다는 것에서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 또한 본 연구 대상 어머니들이 전반적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양육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집단 내에서 양육지식의 차이가 크지 않아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유의미한 차이를 도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수 있다.

이는 인터넷과 육아를 주제로 한 대중매체 프로그램 및 육아도서 등을 통해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양육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 정보를 알고 있으며, 정보를 구할 수 있는 경로의 다양성과, 그로 인해 실제 양육지식 수준이 전반적으로 모두 높아져 개인간 변별력이 떨어졌기 때문일 수 있다. 전반적인 양육지식 수준이 높아진 현시점에서 보다 더 적합한 도구가 개발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는 바이다.

본 연구에서는 직무만족도와 배우자의 지지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도 배우자의 지지가 직무만족도에 비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배우자 지지는 본 연구에서 측정된 어떤 변인보다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아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이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만약 양육스트레스를 높게 인식하는 맞벌이 가정 어머니에게는 배우자와의 관계 개선이 직무만족보다는 우선 순위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이때 직무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대안까지 마련된다면 양육스트레스 감소에 효율적인 해결방안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직무만족도와 배우자 지지의 상호작용효과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즉, 직무만족도가 낮은 집단은 배우자의 지지가 높거나 낮음으로 인해 양육스트레스 차이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직무만족도가 높은 집단은 배우자 지지가 높은 경우 양육스트레스가 급격하게 감소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직무만족도가 높을 경우 배우자 지지가 동시에 긍정적이라면 양육스트레스 완충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직업만족도와 배우자의 지지와의 상호작용효과 연구를 하였던 김기원 외(2010)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김기원 외(2010)의 연구에서 뿐만 아니라, 만 24~36개월 사이의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도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직무만족도와 배우자 지지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김기원 외(2010)의 연구에서 배우자의 지지를 부모의 역할 만족도 척도에서 배우자의 지지 요인을 추렸다는 제한적인 범위에서 측정된 것이라면, 본 연구는 배우자의 지지를 정보적, 정서적, 존중감, 부정적 지지로 보다 세분화시킨 ‘배우자 지지’척도를 가지고 양육스트레스와의 연관성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더욱 신뢰 높은 결과라는 것이다. 결국, 양육스트레스를 감소하기 위한 개입을 할 때 직무만족도와 배우자 지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함을 보여준다. 더불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이해하는데 있어 자녀양육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일과 관련된 직무만족도 역시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상호작용효과를 통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있어 어머니가

자신의 일에 대한 직무만족도가 높은 집단에서 배우자의 지지가 높을 경우 양육스트레스가 급격히 완화되었다는 것은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어머니에게 가정변인으로서의 배우자 지지와 직장변인으로서의 직무만족도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 측면에서 가정과 직장에서의 정서적 파급효과가 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려하여, 기업측면에서의 부부관계 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기업과 가정의 지속적인 노력 속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증재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맞벌이 가정 어머니라는 특성을 가진 집단을 임의로 표집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직장어린이집이라는 안정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요인이 양육스트레스가 낮을 수밖에 없었던 주요한 변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상을 확대하여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등으로 어린이집 유형을 추가하고 확대하여 그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대상 어머니는 대기업에 근무하는 정규직으로 가정의 월수입이 최소 400만원 이상이고, 평균 가정의 월수입이 약 687만원일 정도로 소득이 중상위 계층에 편중되어 있다. 즉, 양육스트레스와 소득과의 연관성을 볼 때 좀 더 경제적인 부분에서 보다 다양한 계층과 직업을 포함한 추후 연구를 통해 본 연구 결과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성별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를 살펴보지 않았다. 36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경우 성별과 무관하게 기본적으로 양육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본 이경하와 서소정(2009)의 연구를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36개월 미만 첫 자녀를 둔 취업모 대상으로 한 강희경과 조복희(1999)의 연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성별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여 진행되어야 하겠다.

넷째, 맞벌이 가정 어머니들의 직무만족도와 함께 취업관련 변인들에 대한 보다 세밀한 탐색을 해 본다면 연구 결과에 대한 더 많은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총 근무시간, 출퇴근시간, 근무 횟수, 경력, 근무시간에 대한 융통성 등 직장 변인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측면들을 고려하여 양육스트레스와의 연관성을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양육지식 척도의 신뢰도는 다른 변인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므로, 본 연구결과에서 양육지식과 양육스트레스의 관계를 해석

하는데 주의가 요구된다. 나아가, 양육지식과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 그치기보다, 양육자의 양육지식을 적절히 측정할 수 있는 시대·사회·문화적인 특성을 고려한 영아기 양육지식 도구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여섯째, 맞벌이 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할 때, 양육스트레스의 각 하위요인별 점수가 아닌 양육스트레스 총점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특성상 양육스트레스를 구성하는 각 하위요인별 점수보다는, 총점이 맞벌이 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는데 적합할 것이라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양육스트레스의 하위요인들이 총점과 성격상 유사하고, 하위요인별로 세분화시켜 분석하였을 때 역시 매우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기에 본 연구에서는 총점을 사용하였다. 다만, 하위요인별로 볼 경우,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에 대해서는 양육지식 또한 양육스트레스와 정적인 관계로 유의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후속연구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겠다.

일곱째, 본 연구에서는 직장어린이집 외에 조부모, 친척, 육아도우미 등을 포함한 양육지원 유무에 따른 양육스트레스가 유의한 차이가 나오지 않았는데 양육지원 유무와 더불어 양육지원의 질과 갈등 정도 등 보다 구체적인 측면도 함께 조사하여 분석해 본다면 더 정확한 관계를 검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요인을 찾기 위한 노력에서 그쳤으나, 연구결과를 통해 밝혀진 상대적 영향력과 개선사항이 바탕이 되어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실행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겠다. 특히, 본 연구에서 높은 직무만족도와 배우자의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밝혀진 만큼, 맞벌이 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개인의 문제로만 바라 볼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관심과 주변의 노력이 필요함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양육스트레스와 연관된 다양한 영역을 고려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인식개선 및 기존 제도 정비와 맞벌이 가정 어머니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규정을 재정비하고 맞춤형 교육지원 및 연계, 다양한 정보제공의 접근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즉,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러한 사회적 지원이 다방면에서 이루어지도록 구체적인 정책 수립을 마련하여, 이를 진단·개선·관리해야 하겠다.

## 참고문헌

- 강희경·조복희(1999). 3세 이하 자녀를 둔 전문 사무직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어머니 역할관과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0(2), 41-55.
- 권미경(2011). 양육스트레스 관련 국내 학술지논문의 연구동향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2), 39-50.
- 권정윤·정미라·박수경(2012). 걸음마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변인 탐색. **유아교육학논집**, 16(3), 143-160.
- 김근혜·김혜순(2013). 만 5세 자녀를 둔 부모의 사회, 인구학적 배경과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 및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 **아동교육**, 22(4), 111-129.
- 김기원·도현심·김상원·이선희(2010). 어머니의 취업여부, 취업 관련 특성, 배우자의 지지 및 양육스트레스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31(5), 101-113.
- 김기현(1998).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9), 49-62.
- 김기현·강희경(1997). 논문편 :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5(5), 141-150.
- 김리진·윤종희(2000).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생태학적 연구: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전문직, 사무직 및 생산직 여성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8(12), 47-58.
- 김명원·강민주(2011). 맞벌이 부부의 성역할태도와 사회적 지원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9(8), 25-35.
- 김영주·송연숙(2007). 1-3세 영유아를 둔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양육스트레스. **열린유아교육연구**, 12(4), 475-493.
- 김은정(2014). 손자녀 양육지원가정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영향요인. **한국영유아보육학**, 89, 237-259.
- 김정미·문승미·김유경·안선희(2013).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어머니-교사 관계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4(5), 79-98.
- 김정·이지현(2005).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 **아동학회지**, 26(5), 245-261.
- 노성숙·한영주·유성경(2012). 한국에서 '워킹맘'으로 살아야기: 직장인 엄마의 다중역할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2), 365-395.
- 도현심·이선희·오유리·김경미·최규리·강나현(2009). 걸음마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 교육 요구도 및 지식정도: 그 실태와 양육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 **아동학회지**, 30(3), 127-143.
- 문혁준(2004).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대한가정학회지**, 42(11), 109-122.

- 민현숙·문영경(2013).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과 영아의 발달 간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지**, 22(2), 43-56.
- 박미석·김지은(2013). 저소득 가정의 부모자원 및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7(1), 179-198.
- 박아이린(2005). MSQ 직무만족도 검사의 문항 및 척도 타당성 분석 .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영신·이경란(2014). 직장인의 직무만족도 형성에 대한 연구: 정서적 지원, 어려움극복 효능감, 스트레스 및 직무성취도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0(4), 469-491.
- 박지원(1985).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서영석(2010). 상담심리 연구에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의 검증: 개념적 구분 및 자료 분석 시 고려 사항.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22(4), 1147-1168.
- 성태제(2007). SPSS/AMOS를 이용한 알기 쉬운 통계분석. 서울: 학지사.
- 송연숙·김영주(2008). 양육스트레스, 양육지식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비교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3(3), 181-203.
- 송유미·이제상(2011). 저출산의 원인에 관한연구 : 산업사회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진출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1(1), 27-61.
- 안지영·박성연(2002).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1), 53-68.
- 양숙경·문혁준(2010). 3세 이하의 자녀를 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분리불안, 어머니의 직업에 대한 태도, 영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4), 67-76.
- 오재연·유구중(2007).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관련변인 탐색: 전라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열린유아교육연구**, 12(5), 73-94.
- 옥경희·천희영(2012). 가구소득에 따른 부부관계와 자녀가치 및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영아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 비교 연구. **아동학회지**, 33(1), 205-221.
- 유성경·한영주·조윤진(2011). 기혼 직장 여성의 개인 특성 및 사회적 지지가 일-가족 갈등 및 향상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2(6), 1955-1975.
- 윤지원·황라일·조현하(2009). 미취학 자녀를 둔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와 관련요인.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5(4), 294-302.
- 이경하·서소정(2009). 영아 및 어머니의 사회인구적 특성,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가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7(3), 87-102.

- 이윤석(2010). 취업한 기혼 남녀의 일과 가족 전이: 부정적 전이와 긍정적 전이의 통합적 접근. **한국인구학**, 33(2), 1-31.
- 이주연·이석호(2010). 영아기 및 걸음마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정보 습득과 양육지식. **아동학회지**, 31(4), 179-197.
- 임순화·박선희(2010). 어머니의 사회경제적 지위, 자녀수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와 영아의 표현어휘 발달과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7(1), 251-278.
- 장춘미(2001). 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부부의지지 및 갈등해결행동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정미라·강수경·김민정·최혜정(2014). 12개월 영아의 기질,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 양육스트레스와 영아발달 간의 구조적 관계. **유아교육연구**, 34(3), 333-354.
- 정문경·김병석(2012). 마인드풀니스가 지각된 배우자 지지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 검증. **상담학연구**, 13(6), 2589-2606.
- 통계청(2011). 2011년 맞벌이가구 및 경력단절여성 통계 집계 결과. 통계청 웹 사이트 <http://www.kostat.go.kr>에서 2014년 8월 12일 인출.
- 한영주·박지아·손난희 (2013). 기혼 취업모의 일-가족 갈등과 일-가족 향상의 관계: 대처 방식과 배우자 지지의 조절효과. **상담학연구**, 14(2), 1443-1468.
- Abidin, R. R. (1990). *Parenting Stress Index*. Charlottesville: Pediatric Psychology Press.
- Aiken, L. S., & West, S. G. (1996).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Newbury Park, CA: Sage.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Beach, S. R. H., Martin, J. K., Blum, T. C., & Roman, P. M. (1993). Effects of marital and co-worker relationships on negative affect: Testing the central role of marriag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1, 312-322.
- Brock, R. L., & Lawrence, E. (2008).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of stress spillover in marriage: Does spousal support adequacy buffer the effect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2(1), 11-20.
- Cobb, S. (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5), 300-314.
- Crnic, K. A. & Greenberg, M, T. (1990).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 1628-1637.
- Gross, D., Conrad, B., Fogg, L., & Wothke, W. (1994). A longitudinal model of



- maternal self-efficacy, depression, and difficult temperament during toddlerhood. *Research in Nursing & Health*, 17, 207-215.
- Grzywacz, J. G., & Marks, N. F. (2000). Reconceptualizing the work-family interface: An ecological perspective on the correlates of positive and negative spillover between work and family.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5(1), 111-126.
- Larson, J. J., & Juhasz, A. (1986). The Knowledge of child development Inventory. *Adolescence*, 21(81), 39-54.
- Mann, M. B., & Thornberg, K. R. (1987). Guilt of working women with infants and toddlers in day care.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27, 451-464.
- Pasch, L. A., & Bradbury, T. N. (1998). Social support, conflict, and the development of marital dysfunc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6, 219-230.
- Weiss, David J., Dawis, Rene V., England, George W. & Lofquist, Lloyd H. (1967). *Manual for the minnesota satisfaction questionnaire*. Minneapolis, MN: University of Minnesota.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 56-75). Newbury Park, CA: Sage.

·논문접수 4월 16일 / 수정본 접수 5월 29일 / 게재 승인 6월 4일

·교신저자: 강민주,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부교수, 이메일 mj kang@yonsei.ac.kr

## Abstract

### The Effects of Parenting Knowledge, Job Satisfaction and Spousal Support on Mothers' Parenting Stress of Dual-income Families

Eun-Young Jung and Min Ju Kang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demographic factors, parenting knowledge, job satisfaction and spousal supports on parenting stress of mothers of the dual-income families. The study was targeted at 220 mothers from double-income families with children(24~36 months old) enrolled in employer-supported daycare centers located in Seoul and Kyonggido area.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through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one-way ANOVA, multiple regression, and hierarchial regression using the SPSS WIN 21.0 program. As for the research results, firstly,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parenting stress depending on demographic variables, i.e., mothers' age, education, family income, number of children, extra childrearing support. Parenting knowledge was not a significant predictor but mother's job satisfaction and spousal support levels were major factors affecting parenting stress. Also, there was an interaction effect between job satisfaction and spousal support when predicting mother's parenting stress. Among those who were more highly satisfied with their job appeared to be positively affected by spousal support whereas the group with lower job satisfaction reported to have higher parenting stress regardless of spousal support.

Key words: dual-income families, parenting stress, parenting knowledge, job satisfaction, spousal support